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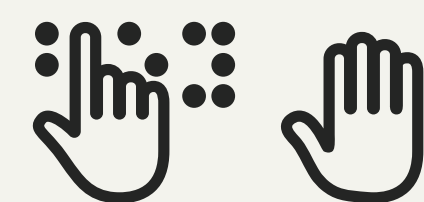
람세스 2세

기원전 약 1279~1213년(신왕국 제19왕조, 람세스 2세 치하)
석회암에 색칠

‘파라오 중의 파라오’라고 불리는 람세스 2세를 새긴 조각
입니다. 파라오는 이집트를 통치하는 왕으로 신의 아들이자
대리자인 절대적 존재를 말합니다. 람세스 2세는 67년 동안
이집트 왕으로 있으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자신의
조각상을 각지에 남기고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 조각도 아비
도스에 있는 신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람세스 2세가 팔을
들고 신들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6106

전시안내 앱에서 수어와 음성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자안내판

6106

람세스 2세 조각상

이 조각상은 파라오 람세스 2세의 모습을 새긴 것으로, 신왕국 제19왕조 시기에 제작되었습니다. 조각상은 람세스 2세가 팔을 들고 신들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조각상에는 다양한 문양과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아비도스에 있는 신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조각은 돌로 만들었어요.